

목포서 제주까지 바닷길 2시간 50분만에 간다

씨월드고속훼리, 5889t급 '퀸스타호' 5월17일 운항

정원 880명·차량 200대 동시 선적... 편의점 등 입점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난 한해 동안 목포를 통한 제주여행객 80여만 명과 차량 15만여대를 수송하는 등 제주기점 1위 선사 입지를 구축함은 물론 목포권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상 관광문화 향상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국토해양부 주관의 최우수 카훼리 선박 및 제주관광대상 운수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올 하반기에는 후속 초고속 카훼리를 해남 우수영~제주간 항로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혁영 회장은 "목포~제주간 배 길은 해상 서를 신개념으로 목포에 오면 다양한 시간대 취항과 해상낚시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쾌적한 공간과 배 밑미가 없는 선박

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높아지는 국민들의 수준과 발맞춰 여객선의 질도 높여야 한다"며 "여행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고의 시설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맞춤형 여객선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tee@

목포~제주간 항로에 2시간대 초고속 카훼리가 취항한다. 씨월드고속훼리(주)회장 이혁영)는 "국내 초고속 카훼리 가운데 가장 빠르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유럽형 초고속 카훼리 '퀸스타호'(총톤수 5889t·선박길이 113m)를 오는 5월 17일 오전 8시 첫 취항한다"고 밝혔다. '퀸스타호'는 여객정원 880명과 차량 200대를 동시에 선적할 수 있고, 속력 또한 국내 최고속도인 38노트(시속 70.4km)로 운항해 목포 여객터미널과 제주항간을 2시간 50분에 주파, '바다위의 KTX'로 불린다. 매일 오전 8시에 목포항을 출항한다.

또 '퀸스타호' 좌석은 관광객들이 안전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항공기 비즈니스 급의 안락한 의자로 꾸며졌다. 선내 휴게실에는 국내 유명브랜드 유명 커피매장과 편의점이 입점해 바다위에서 차와 음료를 마시며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씨월드고속훼리(주)는 지난해 2월부터 제주 노선에 국내 최대·최고·초호화 크루즈 여객선 '씨스타크루즈호'(국제톤수 2만4000t)를 취항, 새로운 해상여행의 패러다임을 선보였다. '바다위의 호텔'로 불린 '씨스타크루즈호'는 여객 1935명과 차량 500대를 적재할 수 있다.

“금오도 비렁길 함께 걸어요”

여수박람회 성공기원 28~29일 트레킹

전남도는 28일과 29일 여수세계박람회 성공을 기원하는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을 추진한다. 금오도 비렁길 트레킹은 해양 생태 녹색길로 떠오르고 있는 금오도를 여수 세계박람회를 통해 알리면서 대회 개최의 성공적 불을 조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연예인·예술인·파워 블로거·외식업 CEO 등이 참여한다. 금오도 비렁길은 최근 몇 년 사이 열풍처럼 불고 있는 '걷기 여행, 슬로시티' 등의 주 무대인 제주 올레길과 지리산 둘레길에 버

금가는 명품 길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연예인 김형일, 아나운서 김지형, 가수 천동, 김장수 등이 참가해 금오도의 비경인 '비렁길'을 걷는다. 특히 연예인들은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작은 음악회도 열고 연예인 사인회 및 베스트 포토찾기 등 소중한 추억 행사를 진행한다. 참가한 블로거들은 여수 세계박람회와 섬도 홍보할 예정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영광군, 전기차 활성화 적극 나선다

'종합 관제센터' 구축... 8개 공공기관에 보급 발대식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영광군이 전기차 보급에 발 벗고 나섰다. 영광군은 지난 25일 도내 22개 시·군 환경단체와 새마을지도자회, 농업경영인 회원 300여명이 참석해 가온데 전군 최초로 8개 공공기관에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군은 영광경찰서와 교육지원청·우체국·농협·수협·축협·영광원전 등 8개 공공기관에 전기 자동차를 보급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전기자동차 활성화가 환경보호의 원동력을 인식하고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에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저해하는 저속 전기자동차의 운행구간 60km 이하 제한 규정이 전기자동차 보급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등 공공기관에 전기 자동차를 보급하는 발대식을 가졌다. 전기차 보급은 "전국 최초로 영광군이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를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종합 관제센터'를 구축하게 돼 전기차 보급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서남권 최대' 목포해양수산 복합센터 오늘 개장

위판장·특산물 판매장 등 갖춰... 목포·신안 수협 공동 운영



목포시 북항에 27일 서남권 최대 규모의 수산물유통센터가 문을 연다. 개장식에는 박지원 국회의원, 목포시장, 지역 도의원, 어민 등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목포시 산정동 북항에 자리잡은 목포 해양수산복합센터는 부지 2만 1831㎡, 건축 연면적 6579㎡로 서남권 최대 규모다. 지난해까지 5년에 걸쳐 국비 75억원을 포함, 모두 15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위판장과 복합동 건물로 구분됐으며 위판장은 지상 2층으로 목포·신안 수협 활어위판장과 식당 등이, 복합동은 지상 3층으로 특산물 판매장, 다목적강당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목포 수협과 신안수협이 공동 운영한다. 목포시는 재단법인 목포 수산물유통센터 설립해 북항 해양수산복합센터와 광동 서남권 수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이인근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불거려·먹을거리·즐거거리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촌서 즐기는 신나는 '팜파티'

도·농 교류의 장... 해남·화순서 올 10회 개최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주 5일 근무와 수업으로 늘어나는 관광객들을 농촌으로 유도하고 농산물 판매를 증대하기 위해 '팜파티'(Farm party)를 개최한다. '팜파티'는 기존의 농촌관광·체험과는 달리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선보이고,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인 도·농간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행사이다. 올해 '팜파티'는 해남과 화순지역에서 10회 실시된다. 주요내용으로는 ▲복숭아꽃과 요리(화순 풀잎농원 4월 28일) ▲첫물 차 제다체험(해남 은향다원·5월 19일) ▲산나물 축제(해남 청정농원·5월 27일) ▲농업은 예술이다(해남 땅콩농원·7월 14일) ▲쌀의 변신은 무죄(화순 함계농장·7월 21일) ▲전통한옥과 함께(화순 청풍자연농원·7월 28일) ▲발효음식 제조(화순 발효삼매경·8월 18일) ▲인삼푸딩(해남 신바람농원·8월 25일) ▲

자두이용 식품 만들기(화순 참새미자두·9월 1일) ▲가을동화(해남 미실팜·10월 2일)이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부터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120명의 팜파티 전문가를 양성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적막한 농촌을 활기차게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팜파티'와 같이 즐겁고, 신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보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할 뿐만 아니라, 15세기 중반 평지부에 방형으로 축조된 육군 진보(鎭堡·각 지방을 지키던 군사조직이 주둔하던 소규모의 성)로서 다른 성곽에서는 찾기 힘든 시대적인 한정성·회소성을 지닌 귀중한 유적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여수 석보'에 대해 30일간의 지정 예고 기간 중에 이해 관계자와 각계의 의견을 검토하고, 중앙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공식 지정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여수 석보' 사적 승격 지정예고

문화재청은 26일 여수시 여전동에 있는 '여수 석보'(石堡=돌로 쌓은 성)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 지정 예고했다. '여수 석보'는 조선 시대(15세기 중반) 널리 활용됐던 산지(山地)나 평산(平山)지역이 아닌 평지에 축조된 방형(方形)의 성곽시설이다.

'여수 석보'는 처음에는 군사적인 방어위주의 석보에서 출발해 점차 관청용 물자비축의 창고(倉庫)와 장시(揚市=시장) 기능으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유적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주목된다. 또 성벽의 몸체 부분과 해자(성 주위에 둘러 판 못)의 잔존상태가 양호

28~29일 광양서 '전남과학축전'

28일과 29일 광양실내체육관에서 '2012 전남과학축전'이 열린다. 올해 14회째를 맞는 이번 축전은 과학체험마당, 어울림 한마당, 과학탐구마당 등 3가지 테마로 추진된다. 특히 첫날인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개막행사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물 로켓쇼와 이동 과학차 과학쇼가 펼쳐진다. 과학체험마당에서는 4D(입체영상) 영상체험, 공기대포 체험하기 등 전남

초중등 과학교사 및 국내외 여러 과학단체가 참여하는 70여개 과학체험 부스가 운영돼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찾아 직접 관찰하고 체험할 수 있다. 어울림 한마당에서는 UFO 날리기, 공중부양 팽이, 과학상식 OX퀴즈를 비롯해 화학과 물리의 원리를 이용한 다양한 과학이벤트가 진행된다. 전시활동에서는 곤충표본과 남도 들꽃사진 등이 전시된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Korea Be Inspired

제82회

춘향제

Chunhyang Festival

남원

얼씨구! 춘향사랑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향긋한 향연이 펼쳐집니다. 가슴뛰는 즐거움이 가득한 천년의 사랑 축제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사랑한다면 남원으로 오세요~!

2012.4.27 (금) ~ 5.1 (화)

남원시 광한루원 일원

춘향선발대회 | 춘향시대속으로 | 춘향전길놀이 | 춘향국악대전 | 춘향그네체험

2012전남과학축전

2012전북방문의해

광주일보

춘향제전위원회
Tel : 063) 620-4861~7 www.chunhyang.org
남원시 문화관광과
Tel : 063) 620-6165, 6183